

'문화로 행복한 군민' 실현 위해 군정 집중할 것

법정문화도시 선정... '주민 주도형의 대역사'

다 사다나했던 임인년의 마무리를 앞두고 고창군(군수 심덕섭)에 남보가 날아들었다.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위업을 달성한 것.

올해 선정된 호남권 문화도시는 고창군이 유일하다. 이번 선정은 민선8기 고창군에서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들의 강렬한 염원이 만들어낸 성과다.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와 염전과 곡물창고 등 지역문화자원의 재탄생을 핵심가치로 '문화 어머니' 약속이 되었다. 치유문화도시 고창 사업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참여가 문화부의 선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주민 주도형의 대역사 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이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역사와 자연 생태, 치유문화라는 날개를 달게 됐다"며 "큰버는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치유문화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창을 실현하기 위해 군정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Q. 문화도시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 고창 문화도시 핵심은 치유를 통한 군민행복에 있습니다. 고창의 세계유산과 문화유산에 있던 우리의 삶, 우리의 정신, 우리 문화에 기반해 현대사회에서 인구감소 문제와 문화적 격차를 함께 해결하는 치유문화가 생활화된 도시를 추구합니다.

실제로 고창은 선운산 고창갯벌, 운곡캠퍼스 습지, 판소리, 농악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속 명상 힐링 성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의 특정 향유층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평적 소통을 통해 실현하는 '주민의 시선으로 가장 아름다운 문화도시'의 핵심가치를 내세워 이번에 좋은 성과를 얻었죠.

Q. 법정 문화도시 지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정부의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특별한 도시로 성장해가려는 사업입니다. 이번 문화도시 선정은 지역문화 활동가와 행정, 의회, 문화관련 단체 등이 합심해 이룬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어서 더욱 특별하죠.

또한, 고창군이 특별한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만큼, 군민 모두가 더욱 큰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대한민국 1등 문화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Q. 사실상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비결은 무엇인가요?

-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아 2년 동안 탄탄한

“ 자유 통한 군민행복 고창 문화도시의 핵심

예비문화도시 지정받아 2년동안 탄탄한 기반 조성

시민공론장 백가정명 나눔공간 등이 주요 사업

단순 문화적 영역 넘어 생활에 활력 불어넣을 것

기반을 만들었어요.

또 윤준병 국회의원, 고창군의회 등 지역 정치권에서 문화도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를 비롯한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문화예술단체 등 중간 지원조직들도 자발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문화도시 지정에 큰 힘을 모아 사실상 지역주민의 자발적 힘이 이번 선정의 최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게 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Q. 고창문화도시 주요사업은?

- '시민공론장 백가정명-누구나 수다방'은

말그대로 주민 누구나 회의를 열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고창과 관련된 어떤 주제는 자유롭게 선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어요.

'고창문화지원 나눔공간사업'은 이는 공간, 물품, 인력을 주민들이 문화활동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선정해 문화정유 프로그램을 실행적으로 운영해 보는 활동입니다.

올해는 섬유미술, 가죽공예, 식초제조, 목공

예, 조각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인 전문가와 함께 개인의 문화적 재능을 찾았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건축물 조양관이나 소금전시관, 염전, 양곡창고 등 곳곳의 공간을 찾아내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 특색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킵니다.

Q. 이들 사업이 지역과 주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요?

- 문화도시 사업은 단순히 문화적 영역으로만 국한해서 운영되는 사업구조가 아닙니다. 고창의 자랑인 여러 농특산품이나 세계유산 도시 브랜드, 도시재생사업 등과 협력해 문화도시 사업이 사회 전반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사업과는 근린 문화공간이나 경관, 환경 등을 재정비해 주민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Q.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뒷받침할 방침인가요?

- 문화도시 선정은 5년간 정부 지원예산을 포함 16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기간에 주민이 고창군을 최고의 문화도시로 구성해가도록 제한 없이 자율성과 창조성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손쉽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주기 위한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속적으로 고창군을 전국에서 가장 특별한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는 일을 주민과 함께 계속해 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2023 World Heritage City GOCHANG Visit Year